

孔雀山 壽墮寺 공작산 수타사

이 규 학 관리수의사_(주)플러스푸드

안개 자욱한 남한강변의 양평(楊平)을 지날 때부터 쾌적한 대기가 마음을 상쾌하게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국도를 달려서 전 지역이 80%가 산악지대인 강원도 홍천군에 접어들었습니다. 빛바랜 늦가을 햇볕이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군청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약 4km를 최근에 정비한 정갈한 국도를 달렸더니 수타계곡이 나타났습니다. 골짜기를 가르며 동물의 꼬리처럼 흘러내린 산줄기 끝자락에 자리한 수타사 전경이 무척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 천년 고찰은 신라 흥덕왕 7년(706년)에 창건되었고, 임진왜란때 불타버린 것을 증진하여 수많은 명승을 배출하고, 근년에는 사천왕상을 보수하다가 발견된 월인석보 2권은 귀중한 문화재이기도 한 유서깊은 사찰입니다.

새소리가 들리는 고요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조심스러운 발길로 말끔히 정돈된 넓은 마당을 배회하다가 대웅전 축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자비로운 불상앞에는 스님은 안 계셨지만 40대 후반인 듯한 두 여인이 엄숙한 자세로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남편의 바람기를 잠재워 달라는 소원 같기도 하고, 자녀의 수능시험을 축원하는 기도 같기도 하였습니다. 숙연해진 마음으로 당우(홍회루, 봉황루, 요사채) 등을 둘러보고 사색에 잠겨 볼 때는 발길을 몇 번이나 멈추게 하였습니다.





사찰을 벗어나서 잠시 망설이가다 왼편 큰 골짜기로 계류를 따라 조금 오르니 넓은 암반을 타고 풍성하게 흐르던 물이 깊은 소(澗)를 이루었습니다.

한길 반은 될 듯 했으나 흰한 바다가 들여다보는 물속에 손을 담그니 전류처럼 짜릿한 감촉에 몸속에 쌓였던 세속 번민들이 물속으로 스며들면서 펄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고개를 젖히면서 산 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푸른 노송아래로 늦가을 단풍이 요염스럽게 손짓하였습니다.

중국의 전 국가주석 장쩌민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단풍에 감탄하여 “상엽홍어 이월화(霜葉紅於二月花)”란 명시를 남겼답니다. 뜻을 해석해보면 “서리 맞은 늦가을 단풍이 이월 매화보다 아름답다”는 내용이나 인생에 비유하면 세파에 시달린 노년이 이팔청춘보다 보기가 좋다는 표현도 되겠습니다. 한구비를 둘 때마다 넓은 반석과 맑은 물이 조화를 이룬 절경지대를 거닐다가 기슭으로 접근하여 공작산의 주능선에 올랐습니다.

수백년 동안 비바람을 이기며 굳건히 버틴 아름드리 노송들이 삶의 의욕을 강하게 느끼게 하면서 아기자기한 암릉과 어울린 자연의 조화가 마치 봄에 발정난 공작새 수컷이 화려하게 펼친 날개같이 환상적인 아름다움에 그동안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해발 889m의 정상에 올랐을 때는 푸른 하늘 아래 장쾌하게 전개되는 강원도 북부지대의 산들이 포물선을 이루었습니다. 높이 오를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진리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서쪽으로 뻗은 803봉을 비롯하여 750봉, 558봉으로 점차 낮아지는 줄기가 수타사 뒷머리로 서서히 내립니다.

암릉을 벗어나 잠관목들이 길을 막는 골짜기로 들어서면 적요한 분위기가 속세를 떠난 듯 하면서 시원한 기온이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알 때는 전신에 가벼운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공작이 알을 품은 듯한 수타사 전경이 더욱 새롭게 모습을 들어냅니다. 옛날 중국의 전설에 완조와 유신이란 두 사람이 수양산의 매력에 도취하여 3일간을 산속에서 해마다가 속세로 돌아오니 300년이란 세월이 흘렀더랍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자연에 몰입된 순간, 어느 사이에 산그늘이 서서히 덮이는 오후였습니다. 